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2시
저녁예배 7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5월 17일 (제794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사랑의 향기?

남미 속담에 '선인장은 자신을 자르는 칼날에 진액을 묻혀 칼날이 녹슬지 않게 하며 선인장 향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우리 속담에도 '향나무는 도끼질을 당해도 그 도끼날에 자신의 향을 묻힌다'는 비슷한 말이 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다(고후2:15). 꽃은 화단에 피었을 때나 꺾어 화병에 있을 때나 심지어 짓밟혔을 때도 향기를 발산한다. 백합화는 가시에 찔렸을 때 더욱 그 향기가 진동한다. 그렇듯 우리도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상처를 당해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한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서도 향기를 발하셨다(눅23:34). 꽃을 꺾는 자들의 손에 꽃향기가 배듯, 예수를 죽인 자들에게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는 남아 그들 중에 회심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한 자들이 많았다.

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벼는 자를 입히고 주린 자를 먹이고 옥에 있는 자를 찾아간 자들에겐 영생을 허락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벌의 길로 보내셨을까? 이는 향기를 발하지 않는 것은 꽃이 아니듯, 사랑의 향기를 피우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악취를 풍길 수 없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하며(롬12:17),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마5:44).

그리스도의 향기된 자들이여, 진한 사랑의 향기를 풍겨라. 그 향기로 인해 모든 자들이 취하고, 세상의 악취가 사라지도록.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후2:14).

나무를 키우면 그늘에 실 날이 있다

금번 파나마(Panama) 집회를 경험하며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 있다. 바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파나마 입성 때부터 경찰 고위층이 경호팀을 이끌고 나와 영접해주었다. 가는 곳마다 그 나라의 권력자들이 돕게 해달라고 기도해온 결과다. 기도한대로 목사님이 가는 나라나 지역마다 믿음의 권력자(총리, 도지사, 시장, 군, 경찰)와 지력과 영력 있는 자들이 돕기 시작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목사님은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돕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그리고 이번 파나마에서 그 기도가 상달되었음을 목도했다.

마누엘(Manuel) 목사는 공항 영접하는

런데 오후 6시가 다되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대통령이 만나기를 원한다는 연락이 왔으며 대통령궁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궁에 이르러 대기하는 중에 그의 속내를 밝혀주었다. 파나마 역사상 개신교 목회자가 대통령과 대면한 일이 없다는 것이다. 오늘이 그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마누엘 목사나 그의 아내 린다(Linda) 사모는 몹시 흥분된 표정이었다. 마누엘 목사는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져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이번 집회가 끝나는 것이라고 믿고 12일 동안 간절히 기도해왔다고 했다. 목사님은 "마누엘 목사의 믿음이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선포한 입술에 역사하셨다." 라고 말씀하셨다.

다. 그는 일개 제3세계 도시국가에 불과했던 싱가포르를 금융, 물류 선진국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인재양성과 부정부패 척결, 그리고 개방체제의 해외자본유치가 거둔 성과입니다. 당신도 자존심을 버리고 열국의 자본유치에 힘쓰고, 깨끗하고 바른 정치를 한다면 이 파나마를 남미 최대국가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목사님은 아직 임기 4년이 남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셨다.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일소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세계 정부와 언론과 금융기관 등이 돕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파나마 역사상 최고의 업적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주셨



후안 카를로스 파나마 대통령 예방(대통령 집무실)

자리에서 "이 나라에 오셨으니 이 나라를 축복하고 꼭 대통령도 만나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목사님은 대통령과의 면담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만나기로 합시다." 라고 말씀했다.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니 그 발언은 마누엘 목사가 공항 영접 때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었다.

모든 집회를 마치고 파나마를 떠나기에 앞서 마누엘 목사 부부가 숙소로 찾아와 오찬을 대접해주었는데, 그 때까지도 대통령 면담 건에 대해 확답이 없었던 것이다. 목사님은 미리 대통령에게 권면하실 말씀도 준비하신 상태였는데 말이다. 그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Juan Carlos Varela Rodriguez, 52세) 대통령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는 5년 임기 중 이제 꼭 1년이 되는 날, 목사님이 방문해주셨다며 기뻐했다. 그가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철학이라고 말하자 목사님은 "그것이 경천애인(敬天愛人) 사상이며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중국의 등소평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듯 가난을 퇴치하는 것이 능사라며 자존심을 버리고 동서의 모든 자본을 구걸하다시피 하여 오늘날 중국 경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인물 중 싱가포르의 리콴유가 있습니

다. 파나마 건국 이래 최초로 개신교 목사가 대통령을 만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대통령궁을 나서며 "파나마의 종들이 얼마나 무능하면 저 멀리 한국에서 온 종이 대통령을 축복하는가?" 하는 마누엘 목사 말에 목사님은 "천만의 말씀! 마누엘 목사님의 기도가 상달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요, 목사님의 믿음이 만든 작품입니다." 하며 한바탕 웃으시며 영광을 마누엘 목사님에게 돌렸다. 할렐루야!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후안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목사님



대통령궁 방문자들과 기념촬영



마누엘 목사 부부와 함께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벧전5:1~6)



교만과 겸손의 차이를 알라

교만(驕慢)은 스스로 잘난 체하며 겸손하거나 온유함이 없이 건방지고 방자함을 이르는 말이고, 겸손(謙遜)은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 상태를 일컫는 말로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요구되는 신앙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과 겸손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잠언 2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저는 이번 파나마에서 참으로 겸손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파나마의 후안 까를로스 바렐라 로드리게스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궁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외모에서부터 겸손이 배어있었습니다. 그것이 험한 정치판에서 승리하여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르게 한 주요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가 부통령 시절, 당시 대통령에게 충언과 조언을 일삼자 이를 간섭으로 여긴 대통령이 부통령직을 박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 불평하지 않고 대통령 덕분에 부통령까지 할 수 있었다고 감사했습니다. 이에 뜻 있는 자들이 그를 추대하여 당을 설립하였고, 야당후보로 대통령에 출마한 그는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학식을 겸비한 그였지만, 저에게 많은 조언을 부탁했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기도를 받을 정도로 겸손한 자였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맛없는 스포가 뜨겁기만 하다

두 번째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 16:18)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보기로 느부갓네살 왕을 소개할까 합니다.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치세의 확장으로 인해 자기의 업적과 권세를 자랑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질 때,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었는데, 한 나무가 자라 하늘에 닿았고,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그 열매가 많아서 거기에 깃든 동식물이 많았는데,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나무를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베어버렸고, 그는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때를 지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에게 임할 일로,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짐승처럼 일곱 해를 지내게 된다고 다니엘이 해몽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으나 왕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단4:30). 하나님은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이 응하게 하셔서 그는 광야에서 소처럼 풀을 뜯고 몸이 이슬에 젖으며, 머리털이 독수리 털 같고 손톱이 새 발톱처럼 되어 짐승처럼 칠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기한이 차매 그루터기를 남겨주신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총명을 주사 그는 예전의 영광을 찾게 됩니다. 이제 그에게서 오만방자했던 지난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

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단 4:37).

세 번째 말씀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잠18:12)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사울과 다윗이 등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자였으나(삼상9:21) 점차 엉덩이에 뿔이 나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제사장이 늦었다는 이유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죄를 짓고 맙니다. 교만이 불순종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왕권을 잃게 되고 비참한 종말을 고향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많은 실수와 죄를 지었음에도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 다. 시편 131편은 다윗의 노래로 겸손한 자가 누리는 평온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은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은 아이와 같도다”(시131:1~2). 하나님은 교만한 사울의 왕권을 겸손한 다윗에게 넘기셨고,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으로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잠29:23)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저와 호형호제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지요. 한 번은 그가 미국 모 정당의 파티에 초대를 받은 일

이 있었는데, 제가 조언해준 대로 그는 제일 말석에 앉

답니다. 그런 데 그 파티의 주최자며 정당의 총재가 나타나더니 이

분을 발견하고는 직접 내려와 ‘왜 여기 앉아계시냐?’며 손을 잡고 자기 바로 옆 자리로 데려가 앉혔답니다. 거기에 미리 자리 잡았던 자들은 다 밀려난 셈이지요. 다들 누구기에 그러나 하는 표정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돌리셨는지 압니까?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신8:12~14). 너희가 누리는 풍족함과 편안함이 너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불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에서 건지시고, 건조한 땅을 무사히 지나게 하셨으며, 굳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였음을 기억하여 절대 교만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마침내 큰 복,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가장 대표적인 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빌2:5~8). 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빈 그릇이야말로 진정한 큰 그릇이다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20:28). 그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요13:3~5).

교만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높아지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고, 남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속에 늘 잠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기는 방법은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길입니다. 곧 믿음으로만 교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바울, 그가 교만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난 후 만물의 찌기 취급을 받아도 감사하는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후1:15).

물은 낮은 곳에 고이듯,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낮은 곳에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응답하시고(왕하22:19), 구원하시며(대하12:6~7), 배부르게 하시고(시22:26), 돌보아주시며(시138:6), 영예롭게 하시고(잠 29:23), 존귀하게 하십니다(잠15:33).

여러분은 혹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고 기분 나빠하거나 재수 없어하면 내가 교만한 겁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당신은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겸손이란 부족함이 없는 자가 낮아져서 섬기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낮아지면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객원컬럼::

::messages for today::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강원도에서 목동까지 매일 자가로 출퇴근을 하던 시기가 있었다. 밤늦게 퇴근하여 집에 가는 차안에서 찬양을 듣고 방언기도를 하곤 했다. 그 시간이 그 당시의 유일한 낙이었다. 평소와 같던 어느 날, 그 당시 치료중인 자폐증 아동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눈물이 흐르고, 아무 이유 없이 서글프게 울며 기도하는 나를 볼 수 있었다. 너무나도 큰 울컥한 감동이 일어났기에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한다. 그 뒤로는 자폐증 아동을 위해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났고, 지금도 글을 쓰면서 눈물을 여러 차례 참고 있다.

그 일이 있던 얼마 후, 직원들에게 우리 기관이 앞으로 그러한 자폐증 아이들을 주로 치료하게 될 것이라는 뜻을 내비추었다. 그랬더니 다들 부담스러워하고 말리고자 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2~3년이 지났을 때는 자폐증 아이들을 가장 많이 치료하는 한의원이 되어있었다.

다행히 처음 치료한 자폐증 아이의 경과가 좋았기에 그 부모님도 고마워하셨고 치료의 뿌듯함도 있었다. 그러나 세상말로 ‘첫끝밥이 개끝밥’이라는 말이 있듯, 그 뒤의 자폐증 아이들은 효과가 미진하기 일쑤였고, 문제행동으로 매일같이 부모님들의 불만토로가 일상이 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운영도 힘들었는데 월 새 없이 관련된 교육을 배워야 했고, 대학원도 다니며 주일도 주말도 명절도 없이 수년을 보냈다. 하지만 눈에 잡히는 것은 없었다. 매일 반복되는 불만과 부족한 치료에 대한 자괴감과 죄책감은 점점 쌓여갔다. 아무리 기도

해도 문제 상황이 손쉽게 해결되는 결과를 보지 못하자, 나도 인간인지라 기도할 의욕을 잃기도 했다.

그렇게 힘들게 이 분야에서 7~8년의 경험과 수많은 시행착오가 쌓이니 이제야 자폐증에 눈이 뜨이고, 원인과 해결책을 점점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몸과 마음은 수많은 실망과 상처 속에 상당도 진료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친 상태를 최근 1년간 경험한 터였다. 이제는 회복도 안 되고 이 일을 내려놓자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회복이 쉽사리 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싶은 시점에, 쉬고만 싶은 시점에 목사님의 설교는 다시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만나가 된다. 다행히 예배를 통해서 힐링의 시간을 얻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도 그 결과가 미진할 때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지치고 힘든 그 순간이 바로 기도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순간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난주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설교처럼, 답도 없어 보이는 힘든 진료현장이지만 다시금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도록 마음을 잡았다. 또한 믿음의 직원들이 함께 기도하며 수고하고 있음에 다시한 번 감사한다. 지금 이 순간, 초심을 떠올리며 다시금 신발끈을 조여 본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은 진리다.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사소한 친절

하워드 켈리(Howard A. Kelly). 그는 1858년 뉴저지의 캠퍼에서 아주 큰 사업가의 외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부러움 없이 자랐습니다.

15살 때 대학에 입학할 정도로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그는 그 유명한 존스홉킨스 병원의 창립멤버로 30년 동안 창의적인 수술방법과 많은 수술도구를 발명했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왕절개수술을 성공했습니다.

하워드 켈리는 집안이 넉넉했는데도 대학 시절 등록금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하워드 켈리는 방문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물건이 전혀 팔리지 않았 습니다. 이미 점심시간은 지났지만 그는 식사조차 못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밥을 먹을 만큼의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 다. 너무 지친 그는 체면 불구하고 어느 허름한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 다. 뭐 좀 얻어먹으려고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오는 여성이 너무 아름다워 차

마 밥 좀 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물 한 컵만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켈리가 몹시 시장한 것을 알아챘는지 우유를 큰 잔에 담아 건네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여인이 뱃속에 혹이 생겨 켈리의 병원을 찾게 됩니다. 켈리의 수술로 그녀는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건강을 찾은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녀의 형편이 넉넉지 않아 많이 나올 병원비가 걱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수납창구에 받은 영수증에는 병원비 대신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의 치료비는 여러 해 전 우유 한 컵으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하워드 켈리.’

그녀는 켈리에서 우유를 주어 허기를 달래준 그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우유 한 잔의 기적입니다.

작은 친절, 사소한 배려. 작은 이것이 사회에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합니다.

예수중심편집실



::승리하는 삶::

YES! NO! WAIT!

여기 3명의 아들과 아버지가 있다. 3명의 자녀들이 배가 고파 아버지에게 빵을 달라고 똑같이 말한다. 그런데 아버지는 첫째에게는 빵을, 둘째에게는 주먹밥을, 셋째에게는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기다리라고 한다. 왜 아버지는 첫째의 요청만 들어주고 둘째와 셋째의 요청은 거절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버지는 둘째와 셋째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3명 모두에게 다른 것을 주었지만 3명 모두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첫째는 장이 튼튼해 무엇을 먹어도 소화 잘 시킨다. 그래서 빵을 줬도 아버지가 안심할 수 있기에 빵을 준 것이다. 그에 반해 둘째는 장이 약해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난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둘째에

게 빵 대신 주먹밥을 준 것이다. 빵도 밥도 아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기다리라고 한 셋째는 5분 뒤 옆집 친구가 와서 본인 집에 맛있는 간식을 먹자고 한다. 이처럼 아버지는 자식들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각자에 합당한 것으로 채워준 것이다.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세 가지 방법의 응답으로 말씀하신다. YES(그래)! NO(안 돼)! WAIT(기다려)! 우리의 기도가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이루어질만한 것이라면, 그분은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해가 된다면 ‘NO’라고 하시거나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위해서 ‘WAIT’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우

리는 기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YES’로 응답하실 때는 기쁨이 넘치지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NO’로 대답하실 때는 원망, 불평, 투정이 나오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죄악 속에서 건지기 위해 독생자조차 우리에게 주신 분이 다. 그런 분인데 무엇이 아까워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지 않으며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는 더 깊은 기도로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분별하여야 한다.

내가 오늘 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YES’로 말씀하셨는가, ‘NO’로 말씀하셨는가? 아니면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려고 ‘WAIT’로 말씀하셨는가?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귀를 기울이세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잘 챙기셨나요? 저는 원래 어린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 습니다. 얼마 전에 태어난 제 친 조카는 그나마 예뻐하려고 애쓰는(?) 중이지만, 여전히 어린이들은 저 에겐 다가가기 힘든 존재입니다. 부모님과 소통하는 면에 있어서도 무뎠직한 성격 때문에 평소 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이번엔 어버이 날이라고 지방에 내려가 계신 아버지께 모처럼 안부 문자를 드렸더니 “전도(사) 일이나 열심히 해라”라고 답장이 오셨더라고요. 이런 성격은 부친 자전(父傳子傳)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지금까지 가르침을 주신 은사(恩師)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저는 좀 인색한 편입니다. 주변의 다른 동료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스승님들께 안부도 묻고 조연도 들고 한다는데, 저는 왜 이렇게 입과 손이 떨어지지 않는지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눅 18:16).”,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20:12).”,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갈6:6).”

사랑은 표현입니다. 무슨 날 지났다고 한동안 무관심할 게 아니라 주변의 아이들과 부모님, 은사님들께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여 늘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전화 한 통화로!
ARS 060-700-0688

응답의 속도

지난 학기, 국가에서 학교에 위탁해 운영하는 장학금 제도에 지원했었다. 자격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저런 서류들을 작성하여 제출했었지만, 기도의 부족인지, 아니면 나보다 더 급한 지원자가 있었던 것인지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억울한 사연이 있었지만, 한마디 내색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신원해주실 것을 기도드렸었다. 그리고 지난 학기동안 두 번의 고배를 마시지 않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했었다. 하지만 노력의 결과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용했던 연구실의 퇴실, 즉 자격 박탈로 이어졌다. 내 집보다 더 깨끗하게 사용하고, 내 학업 시간표는 ‘월화수목금금금’이라 여기며 꾸준히 출석을 했음에도 학기수가 ‘어리다’는 이유로 연구실 연장이 되지 않았다. 애써 태연한 척 했지만 결국 나는 심하게 앓았다. 솔직히 아픈 중에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며 위로해주는 가족들의 말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풍랑 속의 배를 탄 것

처럼 어질어질했다. 어지러운 가운데 참석 한 주일예배에서 목사님은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라고 하셨다.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 문득 다니엘의 기도가 떠올랐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 막았던 ‘바사국군’과 ‘미가엘’의 도우심이 떠올랐다.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상달되었지만, 그에 대한 응답이 돌아오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다니엘 10장). 그리고 어린 시절 들었던 설교 한 토막이 떠올랐다. 기도의 향아리가 가득 차서 찰랑거려야 쉽게 넘치지 바닥부터 채워져 넘치게 하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른 것이다.

그리고 보니, 내 기도의 향아리가 얼마만큼 찼는지 아마득했다. 무조건 순종하며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 그러지 못한 나를 반성했다. “그래! 내가 언제부터 연구실에서 공부를 했었나?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라고 생각하며 툭 털고 일어났다.

연구실에서 퇴실한 후 첫 월요일이었다. 시험기간이 겹쳐 대학원 열람실은 만실이고, 가는 곳마다 학생들이 넘쳐나서 가방을 둘 곳도 없다. 쾌적한 환경과 나만의 책상이 있던 연구실을 기억에서 애써 지우며 자리를 잡았다. 내가 앉는 자리가 명당이고, 그곳이 제일 좋은 연구실이라며 나를 위로하였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은 정말로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해주셨다. 칠전팔기의 마음으로 재 지원했던 장학생 선발에 합격한 것이다. 어찌나 감사하고 감격적인지... 시쳇말로 ‘웃픈’(웃기고 슬픈)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한 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감찰하신다는 믿음이 더 확고해질 수 있도록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에서 온 맘과 뜻을 다해 학업에 정진해보려고 한다. 할렐루야!!

전훈지
ppjee@hanmail.net

로는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다.”(요14:6)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나고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하나님 편에 서라

미국 남북전쟁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북군은 남군에게 계속 연전연패를 당하고 있었고, 링컨 주위의 참모들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절감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아! 이런 위급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합니다. 왜냐면 오직 그분만이 옳고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남군도 북군도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어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 스스로의 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거의 착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내가 진리의 편에 서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도울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급하다하여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편에 서는 자로 그 진리가 지켜 주는 겁니다.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왕들은 세상에서 40년간 왕권을 누렸음에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저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는 한마디로 끝나고 맙니다. 그 기준이 됩니까? “왕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으니”(삼상15:26)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편, 진리의 편에 서 계십니까?

Good News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하루는 지혜로운 신하들을 불러 놓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 보아라.”

이에 첫 번째 신하가 대답하기를 왕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고, 왕의 말씀이 곧 법이며, 온 나라가 왕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하는 술이라고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기분이 좋아지고, 모든 염려 걱정을 다 잊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하는 여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자를 통하여 태어나며,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다스리는 것은 여자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대답한 신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바로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나 술, 그리고 여자는 세월이 지나면 모두 다 사라져버리지만, 진리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왕이 “과연 네 말이 옳도다. 변하지 않고 끝까지 남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 맞구나.” 라고 무릎을 치며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으려고 평생을 해매지만, 자신의 힘으

로는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다.”(요14:6)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나고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나도 건강할 수 있다::

허리질환, 수술을 받느냐 마느냐

한 여성 환자가 허리가 아프다며 진료실을 찾았다. 그녀는 얼마 전 CT촬영으로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수술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던다. “선생님,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의사들이 자주 받는 질문이지만, 같은 질병을 놓고도 의사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상반된 연구결과로 맞서기도 하기에 어려운 질문이다. 더구나 저마다 독특한 요소와 변수를 지녔기 때문에 획일화된 정답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의사는 환자의 개별적 상황에 맞춰 최선의 해답을 찾아갈 뿐이다. 그러려면 보다 면밀한 진찰이 필수적이다. 환자를 진찰대 위에 누이고 검사를 진행한다. 앞드린 상태에서 허리를 눌러본다.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보고 굽혀보기도 하고 돌려본다. 다리의 감각이 둔해진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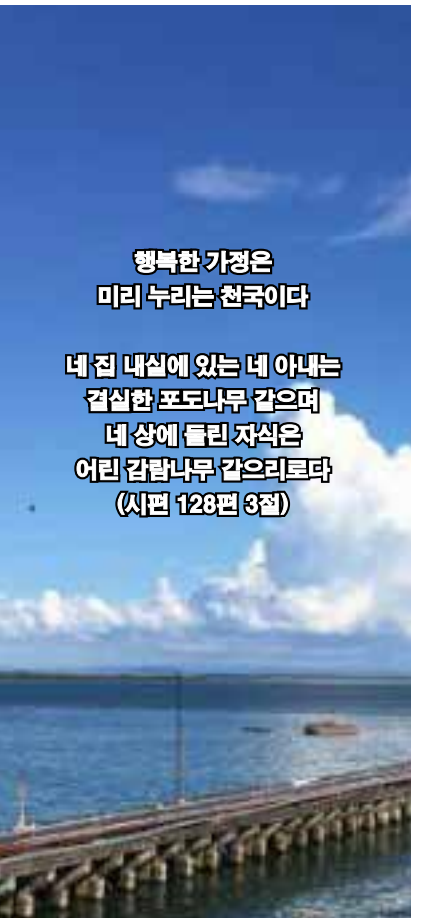
은 없는지, 근력은 괜찮은지, 힘줄을 두드렸을 때 반사적으로 근이 수축하는 건반사도 확인한다.

‘허리가 아프면 수술을 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답은 없다. 하지만 대다수 의사들이 동의하는 일반적인 지침은 있다. 6주내지 12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받고도 증세가 호전 없이 지속될 때, 신경뿌리가 눌려 걸음걸이 파행 등이 뚜렷할 때, 급성 마비로 대소변 가리가 안 될 때, 또는 통증의 정도와 장애가 참을 수 없이 심할 때 수술 치료를 고려한다. 이 말은 허리가 아픈 경우 6주에서 12주까지는 보존적 치료를 하며 증세를 살펴보라는 뜻이며, 그 이후에도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허리 수술을 선택할 때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증세가 어느 정도 심한지, 증세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환자의 증세가 CT와 MRI 등의 영상검사와 일치하는지, 수술에 대한 환자의 의견, 직업, 심리적 상태, 사회경제적 여건, 다른 질병의 유무 등 치료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여러 가지 요인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수술이 결정되면 어느 부위에 어떤 내용의 수술을 어떤 방법으로 하며, 기대되는 치료효과는 무엇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수술 후 회복기간과 재활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발이나 후유증의 가능성은 없는지, 단기적 또는 장기적 예후는 어떤지 등 수술의 다양한 정보를 환자와 그 가족에게 충분히 알려준 후 수술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나 같으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끝내겠다.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겉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니
(시편 128편 3절)